

보도설명자료 (‘14. 7. 25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‘알뜰주유소’ 3년... 알뜰효과 ‘글쎄요’ (‘14.7.25,
한겨레)

1. 보도내용

- ☐ ‘리터당 100원 싸게’를 목표로 도입된 알뜰주유소는 일반 주유소 대비 13.86원/ℓ~48.65원/ℓ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나
 - 리터당 20~60원까지 주유할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가 보편화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소비자에게는 큰 차이가 없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

- ☐ 알뜰주유소는 공동구매 및 非정유사 저가물량을 확보/공급하여 판매함으로써 인근 주유소 판매가 인하를 유도할 목적으로 도입
 - 정부는 알뜰주유소 판매가를 일반주유소 대비 리터당 100원 저렴하게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바 없음
- ☐ 신용카드 할인혜택의 경우 현재 총 5종의 알뜰주유소 제휴카드가 출시되어 최대 150원/ℓ의 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
 - * 우리V카드, 우체국카드, 농협채움알뜰주유카드, 외한알뜰주유카드(2종) 등
- ☐ 한편, ‘14.7.25일 현재 알뜰주유소 판매가는 전체 주유소 판매가 대비 휘발유 43.20원/ℓ, 경유 49.84원/ℓ 저렴함

※ 자료문의 : 석유산업과 이용환 과장, 배성준 서기관(044-203-5224)

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